



Ministry of Environment



KBCSD

환경부-KBCSD 공동개최

『 Sustainable Business Innovation Forum (지속가능기업혁신포럼) 』

소개 자료

TIME TO

Lead.
Transform.
Succeed.





행사 목적

-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건전한 자본주의 및 탈탄소 사회경제 전환을 이끌 중심세력으로서 기업 역할 및 혁신적 민관 협력 해법을 정부-기업 리더들이 함께 모색하는 고위급 민관 플랫폼
- ❖ 산업계가 보유한 '기술과 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산업구조의 녹색전환에 기여할 비즈니스 솔루션 및 정책 방향성 제시
- ❖ 경영 최전선에 있는 비즈니스 리더 시각에서의 지속가능발전 Game Changer 사업모델 및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동료 CEO에게 의미 있는 레퍼런스 제시



개최 시기

매년 10월 혹은 11월 개최되는 연례 포럼



공동 개최기관

환경부, KBCSD(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Co-host) 환경부 장관, KBCSD 회장



주요 참석자

정관계 고위급 인사, 글로벌·국내기업 CEO/임직원, 주한외국공관 대사, 국제기구 대표, 주한상공회의소 회장, 연구기관장, 학계, 언론 등 400여명



논의 주제

- ❖ (2019년) 지속가능한 미래를 견인할 Game Changer 기업들의 혁신과 기술
- ❖ (2020년)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성장동력 표준: 디지털 경제 및 녹색산업 전환
- ❖ (2021년) Time to Transform: Net-Zero와 ESG로의 지속가능한 산업전환
- ❖ (2022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새로운 규칙: ESG 경쟁력과 비즈니스 기회

2. 2019~2022년도 주요 연사



Ministry of Environment



KBCSD



한 화 진
환경부 장관



이 경 호
KBCSD 회장



허 동 수
KBCSD 명예회장
GS칼텍스 명예회장



김 상 희
국회부의장



허 명 수
KBCSD 명예회장
GS건설 상임고문



김 상 협
2050탄소중립녹색
성장위원회 위원장



홍 일 표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



김 명 자
서울국제포럼 회장
효성 이사회 의장
전 환경부 장관



원 희 룡
전 제주도지사



유 제 철
환경부 차관



메리 워릭
IEA(국제에너지기구)
사무처장



서니 버거스
WBCSD 회장
Olam International 회장



왕지밍
CBCSD 회장
중국기업연합회 부회장
Sinopec 전 부회장



스테판 클링어빌
UNDP
글로벌정책센터 소장



선 키드니
국제기후채권기구
회장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

2. 2019~2022년도 주요 연사



Ministry of Environment



KBCSD



신 학 철
LG화학 부회장



윤 부 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 교 현
롯데케미칼 부회장



김 학 동
포스코 부회장



강 달 호
현대오일뱅크 부회장



이 현 준
쌍용C&E 대표
(한국시멘트협회 회장)



이 형 희
SK SUPEX추구협의회
SV위원회 위원장(사장)



김 효 준
BMW그룹 코리아 회장



박 윤 영
KT 기업부문
사장



권재민
S&P Global Ratings
한국대표



오 지 원
헬코리아 사장



서 현 정
ERM코리아 대표이사



사라 챌들러
Apple 환경·공급망
혁신총괄



존 홉킨스
NuScale Corp.
CEO



크리스 존슨
Nestlé 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CEO



카스텐 쿼메
Nestlé 코리아 CEO

2. 2019~2022년도 주요 연사



Ministry of Environment



KBCSD



버트란드 제볼리
S&P Global Ratings
아태지역 지속가능금융 Head



쉐 리 응
Microsoft
아시아퍼시픽
부사장



엠펜 에스원
Google Cloud Head
Of Supply Chain



마크 어링턴
ERM Group
아태지역 CEO



Shell Commercial
Lubricants
아태·중동 지역 부사장



장웨이밍
DSM Global 부사장
DSM China 사장



폴 마틴
호주 퀸즐랜드주
에너지부 차관



요아나 도너바르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



이 동 근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정 중 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원 기 돈
SKPIC글로벌 대표이사
전 SKC 사업운영총괄
부사장



이 재 응
전 쏘카 대표이사

3. 행사 사진



Ministry of Environment



KBCSD

주요내빈(VIP) 참석자 기념촬영



행사장 전경



행사장 전경



❖ 매년 약 30여개 언론매체에서 본 행사 내용 보도

조선비즈

KBCSD(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9일 환경부와 공동으로 제3회 지속가능기업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포럼은 정부와 기업 대표들이 지속가능발전 해법을 마련하고, 국가 성장동력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작했다.

이번 포럼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이경호 KBCSD 회장,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국내외 기업 대표이사, 주한 외국공관 대사 등이 참여한다.

한 장관의 영상 개회사 후 허명수 KBCSD 명예회장(전 GS건설 부회장)이 '기업 경영의 뉴노멀'을 주제로 특별 연설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탄소중립 산업 전환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주제로 기조 강연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김상희 국회부의장,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 회원사 CEO 등 약 40여명이 현장 및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포럼에 함께한다.

한국경제



환경부-산업계, 그린뉴딜 성공 위한 협력방안 논의

환경부는 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와 공동으로 '제2회 지속가능기업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해 처음 개최된 지속가능기업 혁신 포럼은 정부와 기업 대표들이 '혁신과 기술력'을 토대로 지속가능발전과 국가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포럼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경호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등을 비롯해 국내외 기업 대표이사, 주한외국공관 대사 등이 참석했다.

서니 버거스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은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규범과 민관 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영상으로 전달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한국판 뉴딜과 산업계 협력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 매년 약 30여개 언론매체에서 본 행사 내용 보도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21-10-29 (금) 012면

SK·LG·롯데·포스코 수장 탄소중립 전략 머리 맞대

KBCSD 리더스 포럼 참석

SK·LG·롯데·포스코그룹의 최고경영진(CEO)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가능발전 경영 전략을 공유하고 탄소중립 달성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는 29일 환경부와 공동으로 고위급 민간 플랫폼인 'KBCSD 리더스 포럼: 제3회 지속가능발전 비즈니스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경호 KBCSD 회장, 허동수 KBCSD 명예회장(GS칼텍스 명예회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사회적가치)위원회 위원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김교현 롯데그룹 화학BU장, 김학동 포스코 사장 등이 참석했다.

허 명예회장은 환영사에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산업 생산 방식은 물론 삶 전반에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문학적 기술개발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공급 인프라,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유인할 정책 혁신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선순환을 이룰 때 비로소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산업계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해 장기적 성장전략을 설계해야 할 때"라며 "가장 먼저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투자 지원을 통해 산업계가 ESG 관련 독자적 기술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와 특별 대담에서 SK는 ESG 경영 전략으로 ESG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BM) 혁신과 ESG 성과 측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탄소포집·활용·저장(CCUS)과 2차전지 소재 사업 확대 전략을 공유했고, 롯데케미칼은 그린수소 사업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다.

황윤주 기자 hyj@

매일경제

KBCSD-환경부-UNDP 공동으로 'KBCSD 리더스 포럼' 개최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는 29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환경부, UNDP(유엔개발계획)와 공동으로 'Sustainable Business Innovation Forum'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식에서 허동수 KBCSD 회장(원 GS칼텍스 부회장)은 "각국 정부의 화석연료 보조금 3분의 1을 사용 시, 1억7000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1°c배출 저감이 예상되는 '그린 뉴딜' 정책 시행 등 녹색전환 사업과 일자리 재편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중장기 혁신전략에 있어 정부와 국제기구의 국제공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황지영 KBCSD(중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은 "글로벌 비즈니스에 있어 탄소 산업계가 서로 원천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UN SDG(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과정에 산업계 기여를 통한 친환경·질적 성장을 함께 이루길 기원한다"고 말했다.